

2017년 국가직 국어 9급 해설

제공 : 유 두 선 교수

1. 거북아 거북아 (부르는 것이니- 환기)

네 목을 내어 놓아라 (요구)

만약에 내 놓지 않으면(조건)

구워 먹으리라 (위협)

정답 ③

2. ‘우리’라는 집단화자가 노동자의 슬픈 삶을 소극적 자세로 노래하고 있다.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주는 시이다. ④ ‘나와 우리’가 나오므로 주관적 감정을 배제했다고 할 수 없고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시는 아니고 노동자의 삶을 그린 시이다.

정답 ④

3.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끝만 아니라 자루까지 드리날것입니다.’에 해당하는 고사성어는 ‘낭중지추(囊中之錐)로 재능있는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오답풀이>

① 오월동주 : 원수가 한배를 탐, 원수도 위기시에는 서로 돕게 됨

③ 마이동풍 : 남이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음

④ 근목자혹 :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②

4. ② 백화로 인해 옥자가 생각난 것이지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는 내용은 없음.

<오답풀이>

① 위에서 5번째 줄에 내용이 나옴 ③ 밑에서 4째줄을 보면 알 수 있음

④ 백화가 ‘고랑’에 빠져 다쳐서 신음하게 됨

정답 ②

5. '보기'의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 ③ 자동차를 '고치다'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 ①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 ②, ④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정답 ③

6. ① 시망스럽다 는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오답풀이>

- ② 활발하다
- ③ 산만하다
- ④ 잔망스럽다.

정답 ①

7. ② 강기침 : 물기가 없는 기침

<오답풀이>

- ①, ③, ④는 '강(強)'으로 쓰는 접두사이다. ④의 강염기는 강알칼리를 뜻한다.

정답 ②

8. ② '붙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의 의미로 모음이 활용되면 'ㄷ'이 'ㄹ'로 되어 '붙어'로 활용하는 ㄷ붙규칙 용언이다.

<오답풀이>

- ① '갈다'는 '니'앞에서 'ㄹ'탈락
- ③ 이르다('말하다'의미) 'ㄹ' 불규칙
- ④ '들르다'에서 '으' 탈락

정답 ②

9. ③ 지문에는 시간적 배경의 특성이다. 공간적 배경의 역할은 찾을 수 없다. 아이를 보내 고기를 더 받아오려는 어머니의 의도와 그것을 수용하여 전달하려는 '나'의 태도가 드러난 글이다. 중국인도 웃으며 나의 요구에 응대하고 있다.

정답 ③

10. ④ 본문의 마지막 줄에 말이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고 했다. 말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 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이다.

정답 ④

11. ② 나비는 바다를 향해 날아갔으니 의지 부족이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삼월과 초생달은 차가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③ 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오인하고 있다.

④ ‘청무우밭’은 꿈과 이상 ‘바다’는 냉혹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니 대립되어 있다.

정답 ②

12. ② 보기에서 ‘사회비판’이란 말이 판단 기준이 된다. 서술자의 예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개찰구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다. 세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③ ㉠의 뒤에 ‘무거운 한숨’을 볼 때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④ ㉡앞에 ‘고도의 금광열’이 판단기준

정답 ②

13. ④ ㉢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 다시 천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남악산 신령은 선관을 유씨 집에 인도했을 뿐이다.

<오답풀이>

① ㉠ 뒤에 길조가 여차하니(이와 같으니)를 보면 알 수 있다.

② ㉡앞에 ‘한 꿈을 얻으니’로 알 수 있다.

③ ㉢ 뒤에 ‘상제전에 득죄(죄를 얻음)’으로 알 수 있다.

정답 ④

14. ④ 說明(말씀 설, 밝을 명)

描寫(그릴 묘, 베낄 사)

敍事(차례 서, 일 사)

論證(말할 논, 증거 증)

정답 ④

15. ③ 잠그+ 았+ 다->잠갔다(으 탈락)

<오답풀이>

- ① 병이 ‘났다’의 과거 시제는 ‘나왔다’
- ② ‘넉넉하지’에서 안울림소리 ‘ㄱ’뒤에서는 ‘하’를 탈락 ‘넉넉지’가 맞다.
- ④ 잇+ 어서 -> 이어서(入불규칙)

정답 ③

16. ④ ‘뽕’ 28자에 속하지 않으나 주로 우리말 표기에 사용되었다.

정답 ④

17. ④ ‘한밤중’은 명사로 붙여 쓴다.

<오답풀이>

- ①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의미로 붙여 쓴다.
- ② ‘만’은 시간 개념일 때 띄어쓴다.
- ③ ‘-르뻐더러’는 연결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정답 ④

18. ① 探險(찾을 탐, 험할 험)

矛盾(창 모, 방패 순)

貨幣(재화 화, 비단 폐)

② 灼(불탈 작) ③ 棘(가시 극) ④ 惡(미워할 오)

정답 ①

19. ① ㄴ, ㅁ, ㅇ은 ‘비음’이다. 유음은 ‘ㄹ’이다.

정답 ①

20. (가)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나)와 (다)에는 모두 ‘혜시’와 관련있는 내용이다. (다)는 (나)를 부정한 내용이므로 (나)와 (다)는 이어지고 해결책으로 성인의 방법을 결론에 제시해야 한다.

정답 ②

<총평>

문법 8문항, 한자 3문항, 시 3문항, 소설 3문항 독해 3문항이 출제되었다. 출제 문항 수를 볼 때 2016년 경향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독해가 3문항으로 줄었다. 문법 문항수를 변화가 없으나 어휘와 맞춤법 중심으로 많이 나왔고 한자는 문항수는 그대로 출제되었으나 한자성어에 독음을 달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문학의 문항수가 늘었다는 점이 새로웠다. 물론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문학을 등한시 했던 수험생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출제되지 않았던 단락순서 문제도 다시 나와 이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너무 기출 문제 중심의 공부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을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지방직은 국가직보다 어렵고, 서울시는 문법이 많이 출제되니 약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